

완도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등재 위해 국제 협력

캐나다 클레이요트 생물권 보전연맹과 상호 협력



완도군은 최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위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토피노시를 방문, 클레이요트 생물권 보전연맹(CBT)과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클레이요트 생물권 보전지역은

캐나다의 유일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뛰어난 자연 환경과 다양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협력 아래 지속가능한 개발을 함으로써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완도군은 바다와 섬, 숲 등 청정한 자연 환경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하기 위해 클레이요트 생물권 보전지역과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관계를 수립하는 등 협력하고자 합의문을 작성하게 됐다.

서명식에는 레베카 휴이트 클레이요트 생물권보전지역 연맹 대표 이사, 조지 오스본 토피노 시장, 정석호 완도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지역민과 공동체, 연구자들 간의 연합 구성 및 국제 네트워크 참여, 생태학적, 예술과 문화, 교육관광 및 생태관광,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보 및 경험 공유 등으로 구성됐다.

합의문 서명은 신우철 완도군수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2017년 10월부터 계획되었고 꾸준한 접촉 끝에 이루어진 성과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영암군보건소, 틀니 살균세척기 설치 운영

영암군 보건소는 의치 사용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보호 강화 차원에서 민원실에 오존수를 이용한 틀니 자동 살균세척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군은 농촌 지역 특성상 노인 인구가 총 인구의 25.61%를 차지하고 틀니 사용자 대부분이 70세 이상 고령으로 자가 세척이 잘 이뤄지지 않아 악취 등 구강관리 부주

의로 의치사용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여 사용 방법이 간단하고 이용자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자동 살균세척기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기대 속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자동 틀니살균세척기는 개인별 전용 세척 케이스에 1차 세척한 틀니를 넣고

동작 버튼만 누르면 오존수가 자동으로 급수, 살균, 배수까지 작동되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화학약품 첨가 없이 1분30초안에 99.9% 살균, 세척하는 기기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틀니 살균세척기를 이용 청결하고 위생적인 틀니 관리로 2차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위생관리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진도군,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 대상지 선정

진도군이 주민 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은 도 자체 지원을 통해 시군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진도군은 무형문화와 굿을 특화해 진도 문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아리랑 Good(굿)거리 조성'이 뽑혔다.

총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진도

전통·문화 예술의 활성화와 관광 자원화를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 지역 성장 도력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특히 진도 조급시장과 함께가는 문화예술시장 사업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함께 ▲Good(굿) 갤러리 콘텐츠 개발 ▲조급시장 청년 창업물 ▲진도 청년창업지원센터·진도리방랩 개설 ▲진

도 국제 Good(굿)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또 강강술래, 아리랑 등 민속 예술과 함께하는 인문 콘서트와 진도 국제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파워블로그 '진도너' 운영 등 Good(굿)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100개, 외부 관광객과 진도 특산물·가공품 판매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무안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무안군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미세먼지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 화물차 신차 구매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다.

지원사업 규모는 ▲노후경유

차 조기폐차 600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5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25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5대로 총 사업비 13억5천만 원이 투입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 해당되며, 공고일인 2019년 9월 9일 기준 무안군에 2년 이상 자동차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분기별 차량가액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165만원까지,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차량 종류이나 연식, 배기량에 따라 지원금은 다르게 산정될 수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장성미래농업대학, 농업 선진지 견학

장성미래농업대학 먹거리유통학과 교육생들이 지역특화품목 개발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 구축을 위해 선진 농업현장을 찾았다.

교육생들은 최근 친환경 유기농 식품을 생산·판매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드는 '구례 자연드림파크', 6차 산업 우수사례 '지리산피아골식품'과 '삼촌 썬부쟁이' 등 선진지 3곳을 방문했다.

지리산피아골식품은 전남 구례군 지리산 국립공원 내 위치해 있으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전통장류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곳

이다. 먹거리유통학과 교육생들은 이날 점심 없는 청국장, 고추장 만들기 체험과 김미선 대표의 성공 사례 강연을 들었다.

또 교육생들은 구례군 지역특화 식품인 썬부쟁이 나무를 이용하여 체험과 식음을 즐길 수 있는 '삼촌 썬부쟁이'를 방문해, 지역특화 품목 발굴과 6차 산업 현장을 직접 견학하고 장성의 지역특화 먹거리를 이용한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장성=박종영 기자

신안군,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호응

신안군은 초고령 사회 치매예방에 중점을 두는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행복한 수다가 치매를 예방한다'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이 계속 상승하여 치매 환자 수도 매년 증가함에 따라 치매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하여 치매 발병률을 조기에 낮추기 위해 압해읍 가흥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압해읍 26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5주 동안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지역 전문 강사들이 주 1회 경로당을 방문해 90분간 ▲치매예방체조 ▲토탈공예 ▲음악교실 ▲인지강화미술치료 ▲실버보드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인지능력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도 실시한다.

이번 치매예방교실은 눈높이에 맞춘 쉽고 재미있는 운동, 만들기, 게임 등으로 구성하였다.

함평군, 추석맞이 수도권 직거래장터 성황



우수 농축특산품의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 관악구, 인천시 남동구 등에서 함평군 우수 농축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열었다.

추석을 앞두고 도농간 우호증진과 지역상생을 위해 서울

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서울장터(9월 9일 ~ 10일)에 참석했으며, 자매도시인 서울 강북구청(9월 2일 ~ 3일), 강남구청(9월 5일) 등에서 열린 다양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 함평축협을 포함한 지역의 우수 농축특산물 판매업체가 참석하여 약 7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함평=김광준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